

시승격 60주년기념



浦項市史

제1권

浦項市史編纂委員會

市昇格六十周年

浦項市史

제1권

浦項市史編纂委員會







開繼往
來

祝
浦項市
昇格六十周年
陳原春
夏舟鄭普仁

題字 虛舟 鄭 普 仁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 포항시 상징 |



시목 「해송」 市木, City Tree-Sea Pine Tree-Haesong

-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수로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 불리며, 일명 흑송(黑松) 또는 곰솔 이라고 하며 동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향토 수종.
- 천년만년 푸르름과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비바람과 폭풍에도 굳건히 이겨 나가는 굳센 인내와 능률한 시민들의 기품을 상징.
-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소나무에 비해 장엄하고 남성적 기품이 있는 나무로 예부터 백목(百木)의 장(長)으로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며,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 온 수종의 하나로 우리 고장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



시화 「장미」 市花, City Flower-Rose

-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떨기 나무.
-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으며 사랑을 뜻하며 베풀줄 아는 시민이 되길 바라는 의미.
- 세계화로 도약하는 철강도시의 꿈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시민의 정열을 의미
- 꽃말 : 불타는 사랑, 아름다움



시조 「갈매기」 市鳥, City Bird-Seagull

- 해양풍물로 임해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높은 향토애를 상징.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시민들의 부지런함과 근면성, 단합을 의미하고 진취적인 시민기상을 나타낸다.
- 망망한 바다와 거센 파도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표현하며 늘 깨끗하며 고결하여 친근감을 준다.



| 포항시 심벌 |



심벌마크

국제교류와 해양문화의 중심도시, 포항시의 비전을 담아 영문명칭을 이용한 워드마크 형태로 개발했다.

원형 그리드(Grid)를 기본 모티브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문화의 교류를 표현하였으며, 풍성하고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삶과 자유와 활기가 넘치는 무한 가능성을 내포한 포항시의 이미지를 독특한 서체로 개발되었다.



도시브랜드

역동적인 포항시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가 되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새싹과 하트모양으로 친근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퍼져나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리뉴얼하여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포항시의 희망을 담고 있다.



캐릭터

해(연오)와 달(세오)을 상징하며, 포항의 정체성이 담긴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빛과 희망을 상징하며 포항시의 활기, 즐거움, 자유, 희망, 열정을 레드계열의 태양 캐릭터로 첨단, 글로벌, 무한성장, 꿈, 에너지는 블루계열의 달 캐릭터로 표현했다.

한쌍의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며 밝은 표정과 경쾌한 동작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 시민의 헌장 |

억만년 구비쳐 흐를 형산강을 사이하고 늘 푸른 영일만을 가슴에 안은 채 예부터 어업과 해운으로 크게 떨쳤던 동해안의 웅도 우리 포항은 이 나라 체철산업의 심장부로서 즐기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 일찍이 갈대밭 무성한 갯벌을 일궈 오늘의 이 고장을 이룩하게 한 억세고 부지런한 선인들의 큰 뜻을 이어받은 우리 포항 시민은 다같이 드높은 이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자.

- . 우리 포항시민은 이웃을 사랑하며 예절과 질서를 존중한다.
- . 우리 포항시민은 자연을 보호하며 아름답고 명랑한 환경을 조성한다.
- . 우리 포항시민은 문화를 애호하며 근면과 성실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장엄하게 김정자 작사
안승태 작곡

1. 영 일 만 푸 른 물 결 푸 른 햇 살 이
2. 구 만 리 푸 른 새 벽 푸 른 숨 결 이

한 뿌 리 새 - 포 항 의 강 물 을 열 고
비 학 산 운 제 산 - 의 하 늘 을 열 고

세 계 로 번 저 간 - 다 꿈 이 넘 친 다
빛 살 이 물 결 친 - 다 해 가 솟 는 다

첫 물 의 꽃이 피 - 는 형 산 강 굽 이 가 구
세 계 뻗 어 가 - 는 동 해 의 관 문

자 노래하 자 내 사 랑 바 처
새 포 항 새 - 역 사 를 일 구 어 가 자

| 발 간 사 |

‘인류의 역사는 커다란 하나가 되는 행진이다’고 했듯이 지난 역사를 조명하며 조상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서 깊은 지난날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포항의 변화상과 발전된 모습을 수록한 《포항시사》가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새롭게 발간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우리 포항은 지난 60년의 영일만 기적을 발판으로 영일만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이번 시사 발간은 지역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다지며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포항의 원대한 희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사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포항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함께 힘을 기울이며 영일만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대한 향토의 역사를 제한된 지면에 수록하다보니 다소 미진한 부분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토사를 재현해 주신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2만 시민과 함께 시사의 발간을 기뻐하면서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2010년 3월

포항시사편찬위원장
포항시장 박승호

| 축 사 |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불굴의 도전정신이 빛나는 우리 포항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감사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포항의 미래를 위해 《포항시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희망찬 포항호를 이끌어가는 52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0년은 이 땅에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고, 한 번 잘살아보자는 새마을 정신으로 힘차게 나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영광과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항시사》는 60년 포항역사와 함께한 52만 시민들의 땀과 열정의 기록이며, 훗날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자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60년의 성취와 보람을 바탕으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이자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의 새로운 대장정에 나서야 하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된 이번 《포항시사》가 좋은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사 발간이 되기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자료를 찾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선진일류도시 포항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다지고, 52만 포항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 권 두 언 |

이번 《포항시사》는 포항시 승격50주년 기념의 1999년 《포항시사》가 발간된 지 꼭 10년 만에 다시 펴낸 것이다. 시 승격 60주년에 맞춰 발간되는 2009 《포항시사》는 실로 포항시민의 향토 역사·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는 새로 쓰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가르침처럼 국내외의 유명한 역사책은 국운이 융성할 때 이루어졌다. 21세기 포항은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선도할 가장 상서로운 시대 기운을 맞고 있다. 이와 맞물려 편찬되는 《포항시사》는 그래서 뜻깊은 의미를 갖는다.

비아흐로 포항은 민생안정 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환동해 물류중심의 첨단산업과학도시 육성, 품격 높은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일만 포스코 신화에 이은 21세기 영일만 르네상스 창출의 닳을 올리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발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선사시대와 고대의 유적 발굴, 새로운 문헌사로 발견 및 포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 발전은 괄목할 만 하다.

새천년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개최 후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며, 2009년에는 핵심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포항 영일만항 개장, 동빈내항 복원, 동해중부선 착공, 새천년기념관 개관 등 중요 사업들이 열매를 맺거나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보급 포항 중성리신라비가 발견되어 포항역사에 대한 한국 고대사학계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서술의 목적이 ‘인간의 자기인식’에 있다면 《포항시사》 편찬은 포항시민의 포항인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사》도 항상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문제의식에 의해 재조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제1권에는 자연환경과 선사시대~근대사, 제2권에는 현대사의 정치·행정·산업경제·사회복지·교육·종교, 제3권에는 현대사의 문화·예술·언론·출판·체육·관광 및 문화재·민속·인물·마을유래 등을 수록하였다.

무엇보다 편찬의 중요한 변화는 포항시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고 역사의 대중성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조화하기 위해 역사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대거 발탁, 48명의 집필위원을 위촉한 일이다.

또한 포항 역사·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온 포항정신의 탐구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10년간의 변화 발전 양상과 그로부터 파생된 갈등과 진통을 극복하는 사례들을 서술하여 후세의 거울로 남기고자 하였다.

그동안 사실의 고증과 관계 사료의 수집·정리를 위해 애쓰신 집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후학들에 의해 일류 선진도시 글로벌 포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증수(增修)된 《포항시사》가 태어나길 기대한다.

끝으로 《포항시사》 발간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시의회회장, 권창호 포항문화원장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포항삼양문화사 김광석 사장과 박준호 팀장 및 이남림 상근 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0년 3월

포항시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장 배 용 일

포항 시가지 어제와 오늘



1910년대 포항



1920년대 포항



1930년대 포항



1960년대 포항



1970년대 포항



1990년대 포항





2009

포항

자연환경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371호)



포항 북송리 복천수 (천연기념물 468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천연기념물 415호)



포항 마북리 느티나무(보호수 1호)



중생대 화산활동으로 생긴 응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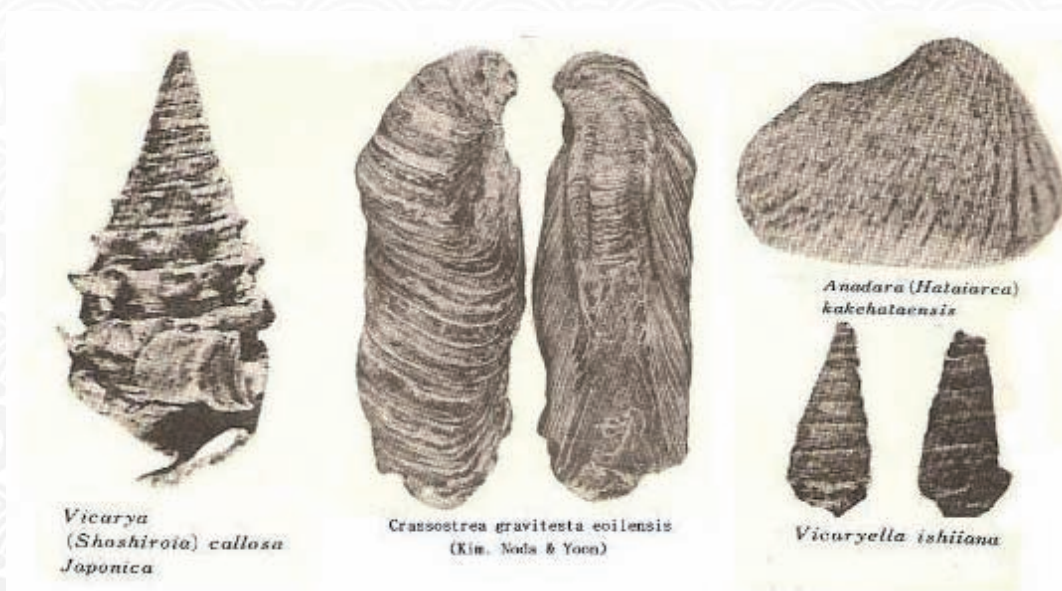
제3기의 화산활동으로 생긴 절리



제3기의 퇴적암(이암)



장기반도에 돌출한 응회암



Vicarya (Shashiroia) callosa Japonica

Crassostrea gravitesta eoilensis
(Kim. Noda & Yoon)

Anadara (Hataiarca) kakehataensis

Vicaryella ishiana

포항 지역 제3기층의 화석



문성리 고인돌



장기 산서리



산서리 새터 출토유물



공당리 고인돌



호동리 출토유물



칠포리 곤륜산 암각화



호동리 청동기 주거지



인비리 암각화 고인돌



강사리 고인돌

강



형산강



냉천



기계천



곡강천

명산



내연산



비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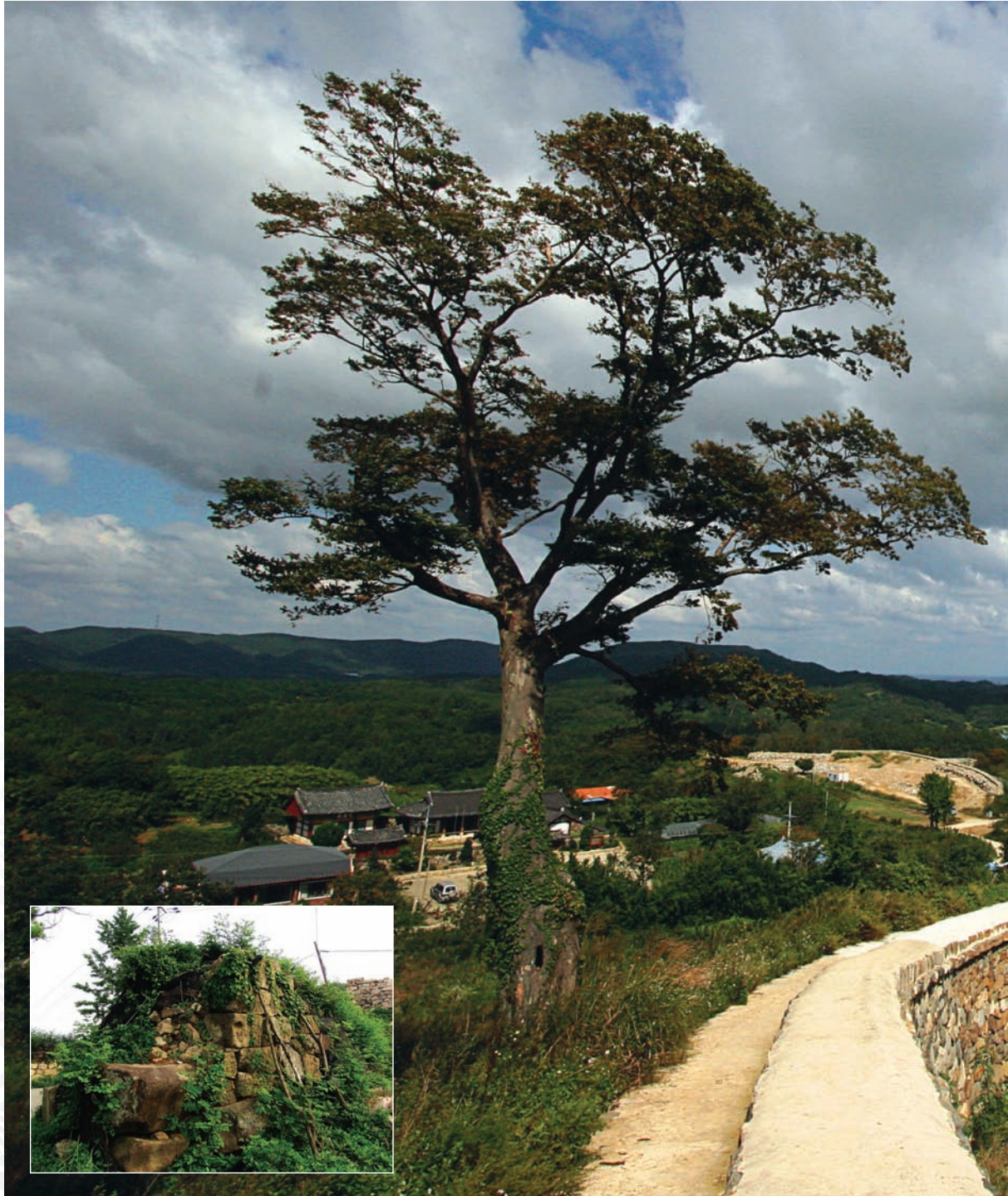


운제산



형제산

성(城)





장기읍성





고현성



남미질부성



뇌성산성



청하읍성



남성

진(鎭)



월포



통양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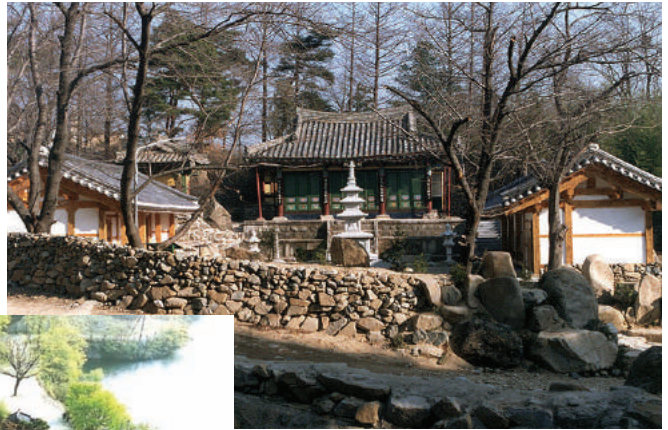


임곡포



모포

불교사적



법광사



오어사



보경사



천곡사 석정



고석사 불상



배천희국사묘



남파대사비



대성사석조관음보살좌상

유교사적



연일향교



홍해향교



청해향교



장기향교



오천서원



입암서원



광남서원



용계정



남성재

비석



정동주 유허비



장기 척화비



흥해 척화비



산남의진 발상기념비



대전리 3·1의거기념비



송라 3·1독립의거기념비